

# 가족과 함께 읽으니 더 재미있어요!

## 고흥 점암초,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개최

고흥 점암초등학교(교장 안영주)는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지난 29일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를 개최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활동 나누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학생 49명(신안면교과 포함),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이 참여한 활동이 아닌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 캠프는 학생들이 단순히 혼자 책을 읽고 그치는 활동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느낌을 나누는 즐거움을 알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스스로 독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윤택이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번 독서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도서 교환전, 평소 좋아하는 시·동화책의 표지를 직접 그려 완성하는 예코백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독서캠프에 참여하였던 김보(6학년) 학생은 "주말에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가족과 함께 골든벨을 준비하느라 책을 열심히 읽었던 일이 보람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송보(1학년) 학생은 "혼자 책을 읽는 것 보다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골든벨 준비를 하니 책 내용이 더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바꾼 책을 알면 읽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독서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독서를 즐겁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순천일보 기자 sdw**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 "학교 뒤뜰야영 너무 신나요"

## 보성 낙성초, 인근 지역 전통으로 자리잡아

보성군 낙성초등학교는 지난 9월 29-30일 1박 2일 동안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 및 학부모, 교직원 함께 한 '낙성한가족 뒤뜰야영'을 실시하였다. 낙성한가족 뒤뜰야영은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1박 2일간 실시한 행사로 무지개학교로 지정되어 폐교 위기가 사라진 지금에도 여전한 학교 전통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번 '낙성한가족 뒤뜰야영'은 기획부터 준비까지 모든 일정을 학부모와 교사가 협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은 학부모 교육기부를 통한 진로교육 및 전래놀이, 종이접기, 리본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부모, 학생 장기자랑, 캠프아이, 촛불행사, 답례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잘 만든 물건을 사고파는 체험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수익금으로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나눔장터가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박영진 학부모는 "학교에

서 이번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이번 뒤뜰야영으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 뒤뜰야영을 준비하면서 학부모들끼리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이주원(6학년)군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지는 것이 무척 설레었고, 장기자랑과 캠프아이들 통해 서로 협동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특히 감감한 밤에 답례공연은 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정숙 교장은 "학교에서 직접 야영 수련 활동을 진행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힘들지만 아이들과 유대감이 깊어지고 좋은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학부모와 함께하는 뒤뜰야영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학교와 학부모간의 좋은 유대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일보 기자 sdw**

# 학교 텃밭, 김장을 꿈꾸다!

## 담양고서중, 교내 텃밭에서 키운 배추 김장봉사활동 예정

담양고서중학교(교장 김성희) 사제동행 동아리 '고서예코팜'은 교내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공해 배추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김장을 담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김장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학기 개학 직후 교내텃밭 정비로 인해 졸업생 백보성씨(담양고서중학교, 담양공업고등학교 출신 농업인)가 재능기부를 하였고 지난 9월 1일 교직원과 학생들이 텃밭에 김장배추를 씨와 배추 모종과 무, 파 등을 심었다.



담양고서중학교 텃밭

나순례 교사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심고 가꾼 채소들은 김장을 담아 이웃 양로원이나 노인정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텃밭 가꾸기를 통해 나누며 베풀려는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강현 학생은 "쓸모없던 땅을 일구어 만든 텃밭에서 가꾼 배추로 선생님, 학생, 학부모까지 함께 참여하여 김장을 담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니 뿌듯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텃밭을 가꿔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양고서중학교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선물로 텃밭에서 난 첫 수확물을 선생님들께 선물하는 훈훈한 사제지정을 보였고 1학기 말에는 수확한 상추, 고추, 깻잎, 방울토마토로 '사제동행 삼계살데이'를 가졌다. 선생님과 벽을 허물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텃밭 노작활동을 통하여 교사인들의 생태감수성 향상은 물론 학생과 공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성문 기자 ksw**

# 국악과 정통클래식의 멋진 만남!

## 담양여자중 대나무소리합창단,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과 협연

담양여자중학교(교장 차과식) 대나무소리합창단(총괄 김미아)은 9월 28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9월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에 다니는 세계여행'에서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지휘자 이준형)과 협연했다.

담양여자중학교 국악합주단인 대나무소리합창단은 2015 담양대나무뿌리축제 식전공연에서부터 무니이국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과 협연 한 바 있다. 김은서의 43명 대나무소리합창단과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은 유전 국악곡인 이경성 작곡 '방황'을 함께 연주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담양여자중 대나무소리합창단은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의 전문연주자들과 나란히 한 무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대나무소리합창단과의 협연의 담양여자중 6명이 포함된 담양중소년교향

악단과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의 브람스 헝가리무곡 No.5가 연주되기도 했다. 관객들은 비오는 가을밤의 정취에 젖어 국악과 정통클래식의 조화로움 하모니와 아름다운 선율이 흠뻑 빠져들었다. 타악기를 연주한 김보미 학생은 "중학교에 들어서서 대나무소리합창단에서 타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나만의 특기와 실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설레고 뿌듯하였다"고 협연 소감을 말했다.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준형 지휘자는 합주단의 연주 솜씨를 칭찬하며 담양여자중 대나무소리합창단과의 협연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하고, 25년 가까이 연주자 정세인 학생의 어머니는 "25년을 연주하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고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문 기자 ksw**



담양여자중 대나무소리합창단,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과 협연

# 지구촌 시대 리더십 배양

## 담양공고, 중국 호주 교통학교 방문 교류활동 성료

담양공고(교장 송병태) 중국 교류단 24명은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7박8일간 중국 절강성(浙江省) 호주교통학교(湖州交通學校)를 방문하여 양교 간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촌 시대 리더십과 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문화 교류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교류 기간 주요 활동으로 호주교통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내외귀빈의 축사에 이어 호주 교통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연극 및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렸다. 교류단 대표 박용근 교장은 담사를 통해 열렬히 환영해 준 호주교통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교류단 방문으로 두 나라간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학생들에게는 지구촌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통학교와의 빈발없는 우정교 발전을 기원했다. 환영행사에 이은 '직업교육포럼'에서는 양교의 직업교육 과정의 특·장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주 교통학교에서는 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교사 대상 기술 연수, 학생들의 기업 체험 학습 전에 7일 동안 교육과 10-15일 간 사전 훈련, 시범 등 철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점은 현장 학습 부족이 많은 우리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다. 교류단의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호주시, 동양시, 상하이 등 중국 주요도시의 산업체 현장 및 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격변하는 중국의 산업 현장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중국 방문에 참가한 2학년 정성훈 학생은 "지난 1학기 교통학교방문단의 방한이 후 중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흥미와 감동을 받았다. 정말 잘 통하지 않았지만 중국학생과 선배님들이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져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중국 산업체와 문화 유적지 현장견학을 통해 넓은 세상과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견문을 넓히고, 훌륭한 기능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면서 자신의 목표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문 기자 ksw**

# 보성 예담초, 4~6학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체험학습

지난 9월 29일, 보성군 예담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1명은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다녀왔다.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통합의학 관련 다양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제관, 체험관, 교류관, 건강존 등 4개의 존과 10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예담초등학교 학생들은 주제 영상관에서 단계로 힐링 영상관을 관람한 후, 각 체험관에서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 체험하고

옛날 의료기구를 관람하는 등 통합의학에 관해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만장성인병관에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뷰티미용관에서 각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 식단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4학년 최영선 학생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세계의 의학 기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질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의료 기술도 더욱 발전하여 앞으로 더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일보 기자 sdw**



담양여자중 대나무소리합창단,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과 협연

(유) 하나로합경

방역 (특정소속) / 전문 번역 / 자유로 협소  
 무역권리특허 (통관/입출국소)  
 TEL : (061)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98-1번지  
 FAX : (061)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삼군 / 삼송  
 TEL : (061)3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방역, 삼군, 삼송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

간이상수도청소	마름 단위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성 등
공간소독	해피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무인자동살균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용 예방